

14 칼뱅에 의한 그리스도의 삼중직 (*munus triplex*)에 관한 연구

최정자 박사 / 평택대학교 조직신학



1. 서 론

그리스도론을 전개할 때, 조직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문제를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테마는 교부신학으로부터 현대신학에 이르기까지 항상 논의의 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munus triplex*)에 대한 조직신학 체계를 수립한 최초의 사람이 칼뱅 (J. Calvin, 1509–1564)이라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¹⁾ 그 이후 개혁파 정통주의에서는 칼뱅의 전통에 따라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1) Heinrich Ott, *Die Antwort des Glaubens*, 267 : “Die Wurzeln der von calvin ab 1542/1543 systematisch entfalteten Lehre vom munus triplex mediatoris sind etwa folgende.”

거의 항상 전개되었고,²⁾ 바르트(Karl Barth)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큰 틀 안에서 자신의 화해론을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삼중직의 내용을 더욱 독창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었다.³⁾

그리나 특히 현대 이후 다양한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성서주석학적,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지금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대표적 비판은 판넨베르크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행되었다.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오늘날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관점, 즉 성서주석학적 관점, 구속 또는 구원론적 관점, 조직신학적 관점, 그리고 실천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먼저 살펴보자 한다.⁵⁾

첫째, 신학의 주제들은 상황의 요청으로부터 파생되기도 하지만, 기독교 신학이 중요한 신학적 전기(典據)자료로 삼고 있는 성서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논의는 확고한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⁶⁾ 비록 칼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용어나 내용을 부처 등을 비롯하여 교회와 신학 전통으

2) Heinrich Heppe, *Die Dogmatik der evangelisch-reformierten Kirche*, hrsg. Ernst Bizer(Kreis Moers : Buchhandlung der Erziehungsvereins Neukirchen, 1935/1861), 355ff ; 이정식 역, 「개혁파정통교의학」(고양 :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7), 641ff ;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356ff.

3) Barth, *Die kirchliche Dogmatik* IV/1-3.

4) Wolfhart Pannenberg, *Grundzüge der Christologie*, 218-232.

5) 참고, 최정자, 「박형룡의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미간행 Th. D. 학위논문, 2008) ; 최윤배, 「〈7〉 박형룡 목사 : 3. 박형룡 사상에 대한 연구들」, (한국기독공보 23면, 2009, 3. 21. 토요일, 제2698호).

6) Robert A. Peterson, *Calvin's Doctrine of the Atonement*(New Jersey : Phillipsburg, 1983), 29.

로부터 물려받았지만, 그는 교리의 모든 주제를 취급할 때마다 그 주제의 성서적, 주석학적 질문을 했다. 칼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확고한 성서주석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근거를 두었다. “구약에 따르면, 예언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은 그들의 직무들에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예언자, 제사장, 왕이어야만 한다.”⁷⁾

둘째,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오늘날에도 신학적으로 구속론과 구원론의 의의를 갖기 때문에 중요하다.⁸⁾ 칼뱅은 삼중직의 용도와 목적을 ‘구원’의 근거와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말함으로써 삼중직론을 영적인 의미에서 설명하고 있다.⁹⁾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의 영원한 구원과 영적인 필요를 돋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¹⁰⁾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문제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총체적 내용으로서 구원에 대한 질문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아마도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유는 이 교리가 예수의 선포의 총체적 내용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무’에 대한 질문,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의미에 대한 질문으로 불리기 때문이다.”¹¹⁾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조직신학적 진술이다. 오토 베버

7) Heinrich Ott, *Die Antwort des Glaubens*(Stuttgart · Berlin : Kreuz Verlag, 1973²⁾), 267 : “Nach dem Alten Testament werden die Propheten, die Priester und die Könige zu ihrem Amte gesalbt, also muß Jesus, ‘der Gesalbte’, auch der Prophet, der Priester und der König sein.”

8) 박형룡, 「교의신학」 IV, (서울 : 개혁주의신행협회, 2006), 240 ; Peterson, 27.

9) 박해경, 「칼빈의 기독론」(서울 : 아가페문화사, 2004), 173.

10) Peterson, 32.

11) Ott, *Die Antwort des Glaubens*, 266 : “Hier aber hat es dann freilich insofern eine besondere Bedeutung, als diese Lehre die zentrale Frage der ganzen Christus-Verkündigung zusammenfassen will : die Frage nach dem ‘Amt’, und das heißt die Frage nach der Heilsbedeutung Jesu Christi.”

(Otto Weber)는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를 ‘은사적·신정론적(神政論的) 직무’(charismatisch-theokratische Amt)로 이해한다. 베버는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의 ‘기름 부음 받음’이나 예수의 ‘세례 받음’을 중심으로 성서를 통해서 자세히 검토한 뒤에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성서주의적 접근법을 사용할 경우 그리스도의 직분론은 직접적으로 수립될 수 없고, 다만 다른 요소들과 함하여 그리스도의 직분론은 성서주의적 진술이 아니라 ‘교의학적 진술’이다.¹²⁾ 하인리히 오트(Heinrich Ott)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교회 안팎에서 항상 변증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삼중직이 ‘특수한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특별히 ‘교의학적’ 전통에서 나온 것이라고 신학자들에게 알려져 있다.¹³⁾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실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세기 현대 신학자들에 의하면, 전통적인 삼중직의 개념이 현대적 혹은 로마가톨릭 교회적으로 새롭게 재해석되었다.¹⁴⁾ 로마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의 그리스도 대리권을 주장하며, 이를 그리스도의 목자직인 교황 무오설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직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속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부

12) O. Weber, *Grundlagen der Dogmatik*, tr. Darrell L. Guder, *Foundations of Dogmatics* II (Grand Rapids :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2), 198.

13) Ott, 김광식 역, 「神學解題」, 260 ; Ott, *Die Antwort des Glaubens*, 266 : “In diesem Sinne hat es keinen typischen ‘Sitz im Leben’. Sondern es ist ein innertheologisches, fachtheologisches Problem, welches uns durch die spezielle dogmatische Tradition aufgegeben wird, welche in der Regel nur dem Theologen bekannt ist.”

14) 김광식, 「組織神學」, 237에서 재인용. K. Barth, *Kirchliche Dogmatik* (Zollikon-Zürich : Evangelischer Verlag AG., 1953/1955/1959), VI/1-3. 합리적으로 그리스도는 교사이며, 경전주의나 감정주의적으로 그리스도는 고통당하는 자이시며, 정치적, 시민 의식적으로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왕이시다.

활 속에서 큰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칼뱅은 그리스도의 왕직과 제사장직과 예언자직의 열매와 능력이 신자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12주일 제32항의 질문은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가?”라고 질문한 후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왜냐하면 나는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회원이 되며 따라서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는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회원이 되며 따라서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므로 그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며, 나 자신을 살아 있는 감사의 재물로 그에게 바치고,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자유함을 얻은 선한 양심으로 죄와 악마를 대항해서 싸우고, 장차 그와 더불어 모든 피조물을 영원토록 지배하기 때문이다.”¹⁵⁾ 박형룡에 의하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삼중직(*munus triplex*), 즉 지혜와 지식의 보화인 선지자직, 대속물을 바치는 유일한 제사장직, 영원하고 최종적인 왕권을 가지신 왕직 속에서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신다.¹⁶⁾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이유들로부터, 오늘날 21세기에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칼뱅의 삼중직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대표적으로 칼뱅의 삼중직에 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와 칼 바르트의 그리스도의 삼중직론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하여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칼뱅의 삼중직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잔센(J. F. Jansen)의 「칼뱅의 그리스도의 사역론」(*Calvin's Doctrine of the Work of Christ*)이다.¹⁷⁾ 그는 칼뱅 이전까지 그리스도의 직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직과 삼중직에 대하여 교리사

15) 이형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세계교회의 신앙고백서」(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80-81.

16) 박형룡, 「교의신학」 IV, 237.

17) John Frederick Jansen, *Calvin's Doctrine of the Work of Christ*(London : James Clark & Co., LTD., 1956).

적으로 다루었다. 그에 의하면, 칼뱅은 초기에는 그리스도의 이중직(제사장직과 왕직)만을 취급하다가 1540년대부터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주장했다. 또 칼뱅의 그리스도 삼중직에 대한 중요한 연구서는 클라우스페터 블라저(K. Blaser)의 「칼뱅의 그리스도의 삼중직론」(*Calvins Lehre von den drei Ämtern Christi*)이다.¹⁸⁾ 이 연구는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잔센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교리사적 고찰을 생략하고, 직접 칼뱅의 그리스도의 삼중직론을 심도 깊게 분석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의 탁월한 연구서는 쉬크(L. Schick)의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교회」(*Das Dreifache Amt Christi und der Kirche*)인데, 이 연구서는 로마가톨릭 교회의 그리스도의 삼중직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¹⁹⁾

그리고 최근에 출판된 피터슨(Robert A. Peterson)의 「칼뱅의 구속론(화해론)」의 주된 내용은 칼뱅이 이해한 그리스도의 구속 내지 화해 사역을 신론과 결부시켜 다루면서도 그리스도의 중요한 구속사역으로 그의 삼중직을 통한 사역을 부각시키는 우수한 글이다. 그러나 칼뱅의 삼중직을 다룰 때 이 책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선행연구를 다루지 않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²⁰⁾

국내에서는 최윤배가 부처와 칼뱅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성령론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²¹⁾ 1990년 전후로 한국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관한 몇 개의 소논문들이 발견된다. 김영한은 “칼 바르트의 그리스도 왕적 통치론”을 통해서 바르트의 왕직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진행하였고,²²⁾ 오영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무론”에서 예언자직과 제사

18) Klauspeter Blaser, *Calvins Lehre von den drei Ämtern Christi*(Zürich : EVZ-Verlag, 1970).

19) Ludwig Schick, *Das dreifache Amt Christi und der Kirche : Zur Entstehung und Entwicklung der Trilogien*(Frankfurt am Main : Verlag Peter Lang GmbH, 1982).

20) Peterson, 27-39.

21) 최윤배, “부처와 칼뱅에게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서울장신대학교출판부(편), 「서울長神論壇」 제7집(1999), 129, 참고, 128-145.

장직을 중심으로 논의했다.²³⁾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중직론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김광식은 “그리스도의 삼직분설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뒤,²⁴⁾ 얼마 후 그리스도의 음부행 및 지옥행과 결부시켜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연구했다.²⁵⁾

최근에 국내에서 최영이 탁월하게 수행한 바르트의 삼중직에 대한 연구는 “칼 바르트의 화해론 연구”이다.²⁶⁾ 또한 허호익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 방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다양한 학자들을 다루면서도 정치신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연구하였다.²⁷⁾

우리는 본고에서 칼뱅의 대표적인 초기 작품부터 말기 작품을 골고루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이해를 역사적 관점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주로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자 한다.

2. 칼뱅의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발전

2세기부터 교회에서 그리스도는 제사장과 왕으로 불렸는데,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 약 100-165년경)은 그리스도의 이중직만을 주장했으며,²⁸⁾ 루터는 그의 소책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그리스도의

22) 김영한, “칼 바르트의 그리스도 왕적 통치론,” 「현대신학과 개혁신학」(서울 : 한국기독교사상연구소, 1990).

23) 오영석,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무론—예언자직과 제사장직을 중심으로,” 「신학연구」 제31호(1990), 333-73.

24) 김광식, “그리스도의 삼직분설에 관한 연구,” 「현대와 신학」 제12집(1989), 41-64.

25) 김광식, “그리스도의 음부행과 지옥행—그리스도의 삼직분설과 관련하여,” 「현대와 신학」 제14집(1991).

26) 최영, “칼바르트의 화해론 연구—그리스도의 삼중직론을 중심으로”(한신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Ph. D. 학위논문, 1995).

27) 허호익, 「그리스도의 삼중직무론」(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28) Jansen, 26-29 참고. 고대와 중세에서 저스틴, 터툴리안, 랑틴티우스, 힐라리, 아타나시우스, 예루살렘의 시릴, 루피누스, 어거스틴, 알쿠인, 라반누스, 피터 롬바르드, 알베트 마그누스 등은 이중직무를 주장하고 있다.

이중직을 주장했다.²⁹⁾ 유세비우스(Eusebius, 약 265–339)는 삼중직, 즉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왕, 예언자이심을 주장했다.³⁰⁾

칼뱅보다 먼저 있었던 그리스도의 직무론에 대한 양식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다양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중에 하나는 메시아적 칭호 안에서 왕과 제사장이라는 이중직과, 다른 하나는 이중직에 예언자라는 세 번째 직무가 추가된 삼중직이 발견된다. 이중직적 해석이 초대와 중세교회 주석에서는 삼중직적 이해보다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칼뱅 이후 시도된 조직신학적이고도 체계적인 해석을 발견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주석적 표현들은 조직신학적이고도 체계적인 것을 지향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가령 저스틴(Justin Martyr)은 축적 효과(accumulative effect)를 위해서 이중직을 사용하

29) Ott, 「神學解題」, 261; P. Althaus, *The Theology of M. Luther*, 이형기 역, 「루터의 신학」(서울 : 크리스천다이제스트, 1994), 251. 루터는 그의 소책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그리스도의 이중직무를 전개했다. “우리의 내적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그 은총을 한층 더 깊이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는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이 모든 처음 난 수컷들을 하나님 자신에게 바치게 하신 것을 알아야 한다. 장자권은 이중의 명예인 제사장직과 왕직의 명예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밑형은 다른 모든 형제들에게 대하여 제사장과 군주격이었고, 그 전형은 육과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은 하나님과 동정녀 마리아의 참되고 유일한 맏아들, 곧 그리스도였다. *Work of Martin Luther*, Holmann ed. (Philadelphia, 1915), vol. 2, 323. 루터는 제사장과 왕직에서 그리스도 사역의 통일성을 설명하고, 이중직의 의미와 결과를 설명한다.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죽음과 지옥과 사탄과 모든 피조물의 주’이고, 제사장으로서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가져다준다. 그는 그의 왕국과 주권을 통해서 모든 죄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중보하고,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으로 드린다: W. Pannenberg, *Grundzüge der Christologie*, 218ff에서 재인용.

30) Jansen, *Calvin's Doctrine of Christ*, 26–27; Ott, 「神學解題」, 261–62; 최윤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munus)에 대한 고찰: 고대교회로부터 칼뱅까지,” 「Pro ecclesia-교회를 위한 신학」, 제7권 2호, 통권 14호 (2008. 12. 20.), 272–291에서 재인용.

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과 주와 사자(使者)와 사람과 지도자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곳에서 그는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과 사자이시며, 어떤 다른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붙잡고 계시며, 붙잡으셔야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³¹⁾

마르틴 부처는 이미 그의 「공관복음 주석」(1527), 「요한복음 주석」(1528), 「시편 주석」(1529)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하여 언급했는데, 그에게서 “기독론과 성령론은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³²⁾ 부처는 “그리스도는 왕국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예언자의 머리이시다.”라고 「공관복음 주석」 제3판(1536)에서 말했다.³³⁾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중심으로 부처가 칼뱅에게 미친 영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³⁴⁾ “그리스도의 업적에 대한 설명은 그리스도의 예언자, 왕, 제사장이라는 세 직무에 대한 서술로 시작한다. 「기독교 강요」(1539)에는 이것이 간단히 언급되었으나, 1559년의 최종판에서는 별개의 장으로 서술할 만큼 커졌다. 이것은 스트라스부르크의 부처의 암시에서 얻은 것이라고 말해진다.”³⁵⁾

칼뱅은 「기독교 강요」 초판(1536)에서 메시아적 기름 부음과 관련하여 이중직만 언급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음성으로 또 하늘의 신탁으로 칭하여진 것과 같아(눅 1:30–35; 2:21) 우리도 그를 진정으로 그렇다고 믿으며, 또 이 이름이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주신’(행 4:12) 이름인

31) Jansen, 26.

32) 최윤배, “부처와 칼뱅에게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129, 참고 128–145.

33) 최윤배, “부처와 칼뱅에게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129, 참고 Martin Bucer, *Enarrationes in Evangelia*(1536), 606: “Rex regnum Christus est, summus sacerdos et Prophetarum caput,” 128–145.

34) 최윤배, “부처와 칼뱅에게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128–145.

35) 全景淵, 「칼빈의生涯와 神學思想」(복음주의신학총서 제27권)(서울 : 한신대학교출판부, 1982), 131.

줄 믿는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자신이 성령의 모든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을 믿는다. 이 은혜가 ‘기름’이라고 칭해진 것은(시 45:7; 시 89:20)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시들어 가고, 마르고 황폐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위에 머무시고,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받도록(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믿음을 통하여 그의 동역자가 되고, 동참자가 된다.) 성령을 그의 위에 다 쏟아 부으신 것처럼(사 11:1-5; 사 61:1-3; 요 1:6), 또한 우리도 믿는 것은 이 기름 부음을 통해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왕으로(*a patre regnum*) 임명되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고(시 2:1-6), 또 그 안에서 우리도 왕이 되어(*ut in ipso reges essemus*) 마귀와 죄와 죽음과 지옥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벧전 2:9; 행 10:36) 믿는 것이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그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아버지의 노를 풀고, 우리를 그와 화목케 하기 위한 제사장으로(*sacerdotem*) 임명되었다는 것과 그 안에서 우리도 제사장들(*in ipso sacerdotes*)이 되어, 우리의 대언자요 중보자인 그와 함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자신과 우리 모두를 아버지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계 1:6; 시 110:1-4; 히 5:1-10; 히 13:15-16).³⁶⁾

위의 구절은 그의 「즈네브 교회가 사용하는 신앙교육과 신앙고백」(1537, *Instruction et Confession de Foy don't on use en l'Église de*

36) *Calvini Opera*(=CO) I, 68-69(=OS=*Opera Selecta* I, 82) : “hac denique unctione constitutum esse a patre regem qui omnem sibi potestatem in coelo et terra subiiceret(Psal. 2), ut in ipso reges essemus, imperium habentes supra diabolum, peccatum, mortem et inferos(1 Petr. 2). Deinde sacerdotem, qui suo sacrificio patrem nobis placaret ac reconciliaret, ut in ipso sacerdotes essemus: ipso intercessore ac medeatore, patri preces, gratiarum actiones, nosmetipsos, et nostra omnia offerentes(Apoc. 1. Psal. 110. Hebr. 5. 13).”; John Calvin, CO I-59 :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 G. Baum, E. Cunitz, E. Reuss, 59 vols. Brunsvigae 1863-1900 ; John Calvin, OS I -V : *Joannis Calvini Opera Selecta*, ed. P. Barth und W. Niesel, 5 vols. Monachii 1926-1936.

Genève)에서 거의 정확한 평행 구절이 발견된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라고 부르는데, 이 칭호는 그리스도께서 천상의 계시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바 있는 바로 그 칭호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에서 성서(행 4장)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인간들에게 주신 바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리스도란 칭호는 그분이 성서 안에 ‘기름’이라는 말로 묘사되어진 성령의 모든 은혜를 충만히 받으셨다는 것을 뜻한다. 이 성령의 은혜를 결하면 우리는 모두 시들고 메말라 없어져 버리고 만다. 이 기름 부음을 통해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왕으로 임명되셨는데, 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신께 굴복시킴으로써 우리로 그분 안에서 왕들이 되어 악마, 죄, 죽음, 그리고 지옥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셨는데, 이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며, 당신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킴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제사장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긍휼의 행위, 그리고 우리 자신 및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와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다.³⁷⁾

여기서 메시아적 직무에 대한 칼뱅의 취급은 이중적 기름 부음의 지배적인 전통을 따르고 있으며, 그 결과 고대와 중세교회의 주석의 특징을 지니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나타나는 루터의 해석과 밀접하게 평행을 이루고 있다. 칼뱅은 이 두 직무하에 전(全) 구속사역을 내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루터에서처럼 그리스도는 이 이중적인 출생권을 그의 신자들과 함께 공유하신다. 게다가 이중직은 단번에 제사장적 희생 제물과 완전한 승리(정복)에 해당되는 화해(구속)에 직접

37) CO V, 338, cf. CO XXII, 53.

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확실히 「기독교 강요」 초판(1536)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교사(Magister)로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독립된 메시아적 직무로서 아직도 간주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 이중적인 메시아직에 받아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 또는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이 기도의 형식 속에 제시되었다. 이 기도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교사로 세우시고, 또 그 한 분만을 우리가 주목하고 들어야 할 분으로 세워 주셨다(마 17:5). 우리의 최고의 교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물려준 기도의 규칙이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였고(사 11:2), 동시에 사람들을 위한 모사로 주어졌다(사 9:6; 참고. 사 28:29; 행 32:19).³⁸⁾

그러나 「기독교 강요」 재판(1539)에서 비록 예언자직이 다른 두 직분에 분명하게 아직도 첨가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유하게 들려지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권리에 의해서 그에게 속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첨가되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성령의 은혜를 부으셨던 모든 사람 위에 주께서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이다. 그가 그의 기름으로 채우지 않았던 어떤 신실한 자도, 어떤 자도 없었다. 그러므로 모든 신실한 자들

38) 따라서 우리는 주의 기도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교사로 만드셨던 최고 교사로서의 그리스도로부터 기도하는 규칙”을 받아들인다. *CO I*, 99(=OS I, 115) : “Habemus quidquid a Deo peter debemus ac omnino etiam possumus, descriptum hac formula et velut orandi regula ab optimo magistro Christo tradita, quem nobis doctorem pater praefecit et quem unum auscultari atque exaudiri voluit(Math. 17) Nam et aeterna eius sapientia semper fuit : et homo factus, angelus magni consilii hominibus datus est(Ies. 9).”

에게 기름 부음 받음이 성취되었다. 예언자들은 그들 자신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다. 왕들도 그것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들도 외적인 의식(儀式)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해석자가 되는 예언자는 성령의 특별한 선물을 수여 받고,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납득된다. 이와 비슷하게, 주의 메신저가 되어야만 하는 제사장 역시 그렇게 수여 받고 구비해야한다는 사실(말 2:7)이 납득된다. 마지막으로 땅 위에 신적 위엄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왕도 비슷하게 그것을 수여 받고 구비해야 한다는 사실이 납득되어진다. 그러므로 제사장들과 왕들과 마찬가지로 예언자들도 임명 받는 기름은 소용없는 상징이 아니라 그분의 참되고도 유일한 기름 부음의 성례전이었다. …… 게다가 시편 2:6이 가르치듯이, 이런 기름 부음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능력을 그 자신에게 복종시키기 위하여 그는 아버지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중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사장으로서 임명되었다.³⁹⁾

이런 구절은 칼뱅의 교리에서 변화와 발전을 보여 주는 셈이 된다. 예언자, 제사장, 왕이라는 삼중직이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유산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다. 한결음 더 나아가 칼뱅은 「즈네브 교회의 요리문답」(1541/1542, *Le Catéchisme de L'Église Genève*)의 제34문항에서부터 제45문항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성령의 기름 부음의 관점에서 더욱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다.⁴⁰⁾

「기독교 강요」 1545년판에서 칼뱅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획득하셨던 왕권과 제사장권을 취급하는 단원의 끝 부분에서 이 판은 다음과 같이 첨부

39) *CO I*, 513, 515.

40) 최윤배 편역,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153-155 ; J. Calvin, *Les Catéchismes de L'Église de Genève*, 한인수 옮김, 「칼뱅의 요리문답」, 110-113.

하고 있다.

또는 그가 이 직무를 내려놓으시는 순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해석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써 그는 또한 대예언자의 직무 안으로 임직되셨다. 그의 입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한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⁴¹⁾

이런 변화는 역시 프랑스어 1543년판과 라틴어 1545년판의 「즈네브 교회의 요리문답」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메시아적 칭호는 여기서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이 칭호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의 직무가 선언되었다. 그는 왕, 제사장 또는 희생 제물, 그리고 예언자로서 인정되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⁴²⁾ 칼뱅은 「기독교 강요」 최종판(1559)에서 독립된 한 장(章) 전체를 할애하여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심도 있게 다룬다.⁴³⁾

칼뱅에 의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발전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칼뱅은 체계화된 삼중직의 분류는 「기독교 강요」 초판(1536)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후기로 갈수록 점점 더 체계화되었다. 그는 초기에, 부처의 「공관복음 주석」에서 삼중직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⁴⁴⁾ 부처는 1540년 10월 2일 신학논쟁에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고, 미래를 설교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부처에 의하면, 신약의 예언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다만 교회의 교사(doctor)가 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론은 스트라스부르크(1538~1541) 시절 부처의 영향을 받은 칼뱅의 후기

41) CO I, 515.

42) CO VI, 19.

43) 칼뱅, 「기독교 강요」(1559), II xv 1~6.

44) François Wendel,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생애와 신학사상」(고양: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9), 268.

에 잘 나타난다.⁴⁵⁾ 칼뱅은 이중직 개념을 「기독교 강요」 초판(1536)에서 처음 사용했고, 1537년 「즈네브에서 사용하는 신앙교육 요강 및 신앙고백」(*Instruction et Confession de Foy don't on use en l'Église de Genève*)에서는 이중직이 나타났다. 「기독교 강요」(1539)에서는 선지자 직분이 처음 나타났다.⁴⁶⁾ 그 후에 칼뱅은 1542년의 「칼뱅의 요리문답」과 「기독교 강요」 최종판(1559)에는 예언자직을 첨가하여, 삼중직(예언자, 왕, 제사장)을 나란히 언급하는데, 특히 그리스도의 예언자직과 제사장직을 중요시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왕직을 강조하고 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1559) II xv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집중적으로 논하고,⁴⁷⁾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한 장(제2권 15장) 전체를 할애했다.⁴⁸⁾ 칼뱅의 영향으로 많은 개혁교회의 신앙고백들 속에 그리스도의 삼중직론이 받아들여졌다.⁴⁹⁾

45) 최윤배, “성령론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 부서와 관련하여,” 「칼빈신학과 목회」(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35.

46) Peterson, 27. “He used the twofold office idea in the first(1536) edition of Institutes. In his treatise ‘Instruction in faith’ of 1537, the twofold office appeared again. In the 1539 Institutes the prophetic office occurred for the time.”

47) J. Calvin, *Les Catéchismes de L'Église de Genève*, 한인수 역, 「칼뱅의 요리문답」(1537/ 1541/ 1542), 109~111; Inst.(1559) II xv 1.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견고한 기초를 발견하여, 그에게 의뢰한다. 따라서 우리는 성부께서 그리스도에게 맡긴 직무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예언자와 왕과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는 까닭이다.”

48) “칼뱅은 그리스도의 이중적 직능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고 동시에 예언자직을 기술한 ‘강요’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에 특별한 강조점을 두고 있다.” 칼뱅은 초기에는 제사장직과 왕직, 이중직을 말하고 후기 주석에서 예언자직을 첨가함으로 삼중 기능을 말한 것이다. 빌헬름 니젤,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113~114; 「기독교 강요」(1559), II xv 1. 를 참고.

49) 이형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세계교회의 신앙고백서」(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80~81.

3. 칼뱅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삼중직

「기독교 강요」 최종판(1559)에서 칼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데 인색한 이유를 들어 아우구스티누스가 정죄했던 이단과,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언급하면서도 그것을 언급해야 하는 목적과 용도를 올바르게 몰랐던 중세 로마가톨릭 교회를 비판한다.⁵⁰⁾

그러므로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겸고한 기초를 발견하기 위하여 그리고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기 위하여, 다음의 규칙이 제정되어야 한다. 아버지에 의하여 그리스도에게 부과된 직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예언자, 왕, 그리고 제사장으로 임명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름들의 목적과 용도에 대한 이해 없이 이름들을 아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다.⁵¹⁾

칼뱅은 세 직분이 부여된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칭호를 성령론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지금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이 세 직분과 관계된다는 사실에 우리의 주의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하에서 제사장들과 왕들처럼 예언자들도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메시아라는 빛나는 이름은 약속된 중보자에게도 수여되었다. 다른 곳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특히 그의 왕직과 관련하여, 그리고

5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I xv 1.

5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I xv 1.

왕직 때문에 메시아로 불린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가 예언자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당연히 그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 사실은 우리에 의해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⁵²⁾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세 직분을 부여 받았고, 중보자와 구속주의 사역을 성취하신다는 칼뱅의 그리스도의 직분론에 대한 중요한 측면을 의식하면서 칼뱅이 이해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차례로 분석하기로 한다.

1) 그리스도의 예언자직

김군진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다.⁵³⁾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교훈하신 결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대가 항상 있었고, 심지어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마리아 여성에게조차도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있었음을 성경 구절들(요 4:25; 사 9:6; 28:29; 55:4; 렘 39:19; 히 1:1-2; 시 74:9; 단 9:24)을 인용하여 칼뱅은 논증한다.

그러나 예언자들에 주어진 공통된 임무는 중보자가 오실 때까지 교회로 하여금 중보자의 오심에 대한 기대 속에 있게 하는 동시에 그 기대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져 있는 동안 신자들은 저 일상적 혜택을 빼앗긴 것에 대하여 불평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⁵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성령론적으로 이해한 칼뱅은 그리스도의 예언

5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I xv 2.

53) 김군진, 「기독교조직신학」 Vol. I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6), 270.

54)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I xv 1.

자직에 대한 논의에서도 그리스도의 예언자 되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경구절을 통하여 밀접하게 연관시킨다. 칼뱅은 이사야 61:1~2을 인용하여 예언자로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강조한다.

아버지의 은혜의 사자(使者)와 증인이 되기 위하여 그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의 방법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비슷한 직분을 가진 다른 교사들과 구별되기 때문이다.⁵⁵⁾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은 다른 예언자들이나 교사들과 이중적 관점에서 구별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람들, 즉 교회를 위해서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음 속에는 기독론적 모티브와 교회론적 모티브가 함께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복음의 계속적인 선포(설교) 속에서 현존하도록 자신의 몸 전체를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실은 다음의 사실을 확실하게 한다. 그가 가져오신 완전한 교리는 모든 예언들의 마침이 되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밖에서 무엇을 가져다 그것에 꿰매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축소시키는 것이다.⁵⁶⁾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예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

5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I xv 2.

5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I xv 2.

음의 단순성 안에 머무를 것을 칼뱅은 촉구한다.

복음의 단순성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사도의 말씀은 참되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언자적 위엄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전체 교리 안에 완전한 지혜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신다.⁵⁷⁾

2) 그리스도의 왕직

칼뱅은 순서상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을 제일 먼저 다루고, 제사장직을 제일 마지막에 다루지만, 지금 우리가 취급하고자 하는 왕직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왕직과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칼뱅의 이해에서 가장 중심부에 흐르고 있는 사상은 성령론적 관점이다. 칼뱅은 이것을 '영적'(spiritual) 성격 내지 '영적' 특성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지만, 내용상으로 그리스도의 왕직과 관련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은사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칼뱅은 그리스도의 왕직에 관해 논의하는 세 절마다 그리스도의 왕직의 성령론적 관점을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시작한다.

나는 지금 왕권을 언급하고자 한다. 왕권이 성격상 영적(spiritual)이라는 사실을 먼저 나의 독자들에게 경고하지 않고 왕권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은 헛된 일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왕권의 영적(spiritual) 성격으로부터 우리는 왕권의 전체 능력과 영원성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한 왕권의 효력과 유익을 추론한다.⁵⁸⁾

5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I xv 2.

5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I xv 3.

3절을 위와 같이 시작한 칼뱅은 또한 4절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적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의 능력과 유용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라는 말로 시작한다.⁵⁹⁾ 칼뱅은 5절도 구약의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⁶⁰⁾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적인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각 사람은 이 말에서 용기를 얻어 더 좋은 생명에 대한 소망을 불잡아야 한다.”고 칼뱅은 말한다.⁶¹⁾ 그리고 이 생명이 지금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우리는 오는 시대에 이 은총이 완전히 결실하는 것을 기다려야 하지만,⁶²⁾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상적이거나 육적인 것이어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높이 들어 올려 영생에까지 이르게 한다”.⁶³⁾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왕의 힘을 받아 불굴의 자세를 견지하며, 왕의 영적 보화가 그들에게 풍성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이 옳다.”⁶⁴⁾고 칼뱅은 말한다. 더 나아가 그는 “성령은 그리스도를 거쳐로 택하시고, 우리에게 심히 필요한 하늘 보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부하게 흐르게 하셨다.”라고 강조한다.⁶⁵⁾

그리스도의 왕직과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적 성격과 함께 ‘영원한’(eternal) 성격이 나타난다. 영원성은 ‘그리스도의 위격’(the person of Christ)에 돌려지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자신의 교회의 ‘영원한 보호자와 수호자’(the eternal protector and defender)가 되게

5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I xv 4.

6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I xv 4.

6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I xv 3.

6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I xv 3.

63)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I xv 4.

64)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I xv 5.

6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I xv 5.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영원한’ 왕으로 임명하셨고, 교회는 ‘영원한’ 보좌를 기초로 건설되었다.⁶⁶⁾

칼뱅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왕직은 영원한 성격을 가진다. 그리스도의 왕직의 이러한 영원성은 다니엘 2:44에 암시되어 있다고 칼뱅은 말한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말씀으로부터 칼뱅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해석하면서 동시에 이 나라의 통치자인 왕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본다.⁶⁷⁾ 그리스도의 왕직은 또한 혜택과 유익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부여한다.

그러나 이 영원성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고찰되어야 한다. 첫째는 교회 전체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각 교인에 관한 것이다. 칼뱅은 그리스도의 왕직의 영원성과 교회 전체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의 손을 거쳐서 자신의 교회의 영원한 보호자와 수호자가 되시겠다고 시편 89:35~37에서 확실히 약속하신다. …… 이사야는 53:8에서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서 자신의 지체들과 결합되리라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영원한 권능으로 무장하셨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보호하에서 교회가 확실히 영속하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⁶⁸⁾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직은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영원하게 수행될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6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I xv 3.

6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I xv 3.

6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I xv 3.

그리스도는 교회가 영원히 보존되리라고 신자들에게 다짐하며, 교회가 풍박을 받을 때마다 소망을 가지라고 격려한다. …… 아무리 많은 강적들이 교회를 음모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영원한 왕으로 임명하신 그 확고부동한 결정을 전복시킬 힘은 그들에게는 없음을 다윗은 시편 110:1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악마는 세계의 총력을 동원하더라도 교회를 전복하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좌를 토대로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이 생각을 우리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똑같은 ‘영원성’에서 우리는 영감을 받아 축복된 영생불사를 바라보아야 한다.⁶⁹⁾

이런 관점에서 칼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성육신 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임명하셨다. 그러므로 칼뱅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는 것과 같으며, 이 대리의 뜻은 그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전적으로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왕권은 최후심판까지 이어진다.⁷⁰⁾

3)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칼뱅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겸비와 고양 상태 모두에 해당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부활·승천하셔서 자신의 지상 생애에서 이룩하신 제사장직을 그가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효과적으로 적용시키신다.⁷¹⁾ 나젤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효력은 중보자와 화해자로 나타난다.⁷²⁾ 중보자라 함은

6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I xv 3.

7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I xv 5.

71) 최윤배, “성령론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 부서와 관련하여,” 「칼빈 신학과 목회」, 한국칼빈학회 엮음, 44.

72)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115.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세계의 죄를 속하며, 흠과 티가 없으신 중보자로서 그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것이다. 의로우신 저주가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도록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야 했다.⁷³⁾

다시 말하면, 칼뱅에게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목적과 용도는 크게 두 가지, 즉 화해(reconciliation)와 중보(재)(intercession)사역이다.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제사장(priest)이신 동시에 희생제물(sacrifice)이 되신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목적과 용도를 간단하게 언급해야 되겠다. 순전하고 무죄한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거룩성에 의해 우리를 하나님께 화해시켜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신 저주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고, 능력 안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신다. 그러므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를 얻고,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속죄(expiation)가 개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직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신다.⁷⁴⁾

칼뱅은 구약의 레위기와 신약의 히브리서를 인용하여 구약의 제사장의 제사 방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방법에 대하여 논의한다. 구약의 제사장도 짐승의 피를 통하여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백성들의 속죄를 받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속죄의 죽음을 통하여 유일하고도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게 되었다.⁷⁵⁾ 여기서 칼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

73) 위의 책, 115.

74)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I xv 6.

7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I xv 6.

음을 매우 강조한다. “그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효과와 유익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⁷⁶⁾

칼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사역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에 대하여도 언급한다.

그리스도의 탄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재자(intercessor)가 되신다. 그러므로 기도 속에서 신뢰가 생길 뿐만 아니라 경건한 양심들 속에서 평화가 생긴다. 한편 그들은 하나님의 부성적인 자비를 안전하게 의존하고 중보자를 통해서 바쳐진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된다. 비록 하나님은 율법하에서 동물의 희생 제물들을 그에게 바치도록 명령하셨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 다른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 안에서 동일한 한 분이 제사장인 동시에 희생 제물이 되어야만 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다른 적당한 만족(satisfaction)이 없기 때문이며,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자는 오직 독생자 외에는 발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적 역할을 하시는 것은 화해의 영원한 법에 의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하여 호의와 친절로 대하도록 하시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이 위대한 직책 속에서 우리들을 동료들(companions)로 받아주시기 위함이다(계 1:6). 우리 자신 안에서 오염되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들(priests)인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희생 제물들과 찬양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하고 향기롭게 될 수 있는 하늘 성소에 우리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⁷⁷⁾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우리들의 제사장직을 구별하면서도 연

7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I xv 6.

7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I xv 6.

결시켰던 칼뱅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희생 제물을 사제들의 제사장직과 미사와 연속선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중세 로마가톨릭 교회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III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다시 희생 제물로 감히 드리는 자들의 조작 행위는 더욱 가증스럽다! 미사를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간주하면서 교황주의자들은 매일 매일 이 일을 시도한다.⁷⁸⁾

4. 결 론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논의 자체에 대하여 회의적인 견해가 있지만, 본 논문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성서주석적 관점, 구속론적 관점, 조직신학적 관점, 그리고 실천적 관점에서 제시하면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간단한 연구사를 취급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칼뱅의 본격적인 논의 이전에 교회사 속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이중직과 삼중직에 대한 표현들이 있었다. 그러나 칼뱅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조직신학적 논의 이전의 그리스도의 이중직이나 삼중직에 대한 논의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나 칭호를 병렬식으로 사용된 ‘축적효과’(accumulative effect)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었다.

칼뱅은 처음에는 예언자직을 제외한 이중직을 언급하다가 특히 부처의 영향으로 「기독교 강요」(1539)부터 삼중직이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삼중에 대한 칼뱅의 이해는 「기독교 강요」 최종판(1559)에 체계적으로 확장되었다.

7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I xv 6.

칼뱅이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성령론적으로 규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서 이외의 새로운 계시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성서로부터 견진한 교리를 추구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과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적이며, 영원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임명하셨고,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은사와 생명을 풍성하게 주어 항상 다스리신다. 제사장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신 동시에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추게 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성취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를 중재하신다.

우리는 칼뱅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칼뱅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조직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취급한 최초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다.

둘째, 칼뱅의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발전에 영향을 준 요소들 중에 하나가 역사적 영향이다. 그중에 특히 마르틴 부처로부터의 영향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루터에게는 모든 신자제사장직 사상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칼뱅에게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칼뱅의 모든 신자제사장직 사상은 그의 「히브리서 주석」이나 「베드로전서 주석」에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분석한 「기독교 강요」 최종판(1559)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넷째, 칼뱅이 이해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모든 신자제사장직은 로마가톨릭 교회의 사제를 통한 미사에 대한 비판적인 전거를 지금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칼뱅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를 교회와 상당히 일치시키는 인상을 받는다.

참고문헌

-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Vol. II. 서울 : 연세대학교출판부, 1986.
- 김광식. 「그리스도의 삼직분설에 관한 연구.」 「현대와 신학」 제12집, 1989.
- 김영한. 「칼 바르트의 그리스도 왕적 통치론.」 「현대신학과 개혁신학」. 서울 : 한국기독교사상연구소, 1990.
- 박형룡. 「교의신학」 IV. 서울 : 개혁주의신행협회, 2006.
- 박해경. 「기독론」. 서울 : 아가페문화사, 2004.
- 全景淵. 「칼빈의生涯와神學思想」(복음주의신학총서 제27권). 서울 : 한신대학교출판부, 1982.
- 이형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세계교회의 신앙고백서」.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오영석.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무론-예언자직과 제사장직을 중심으로.」 「신학연구」 제31호, 1990.
- 최운배. 「성령론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 부서와 관련하여.」 「칼빈신학과 목회」.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최영. 「칼바르트의 화해론 연구-그리스도의 삼중직론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Ph. D. 학위논문, 1995.
- Barth, K. *Die kirchliche Dogmatik* IV/1-3. Zollikon-Zürich : Evangelischer Verlag AG., 1953/1955/1959.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vol. II, 권수경, 이상원 역, 「벌코프 조직신학(하)」. 고양 :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2.
- Blaser, Klauspeter. *Calvins Lehre von den drei Ämtern Christi*. Zürich : EVZ-Verlag, 1970.
- Calvin, J.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 J. T. McNeill 2 Vols,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65.

- _____. *Les Catechismes de L'Église de Genève*, 한인수 역. 「칼뱅의 요리문답」(1537/1541/1542). 서울 : 도서출판 경진, 1995.
- _____. *OS I-V: Joannis Calvini Opera Selecta*, ed. P. Barth und W. Niesel, 5 vols. Monachii 1926-1936.
- Heppe, Heinrich. *Die Dogmatik der evangelisch-reformierten Kirche*, hrg. Ernst Bizer, Kreis Moers : Buchhandlung der Erziehungsvereins Neukirchen, 1935/1861.
- Jansen, John Frederick. *Calvin's Doctrine of the Work of Christ*. London : James Clark & Co., LTD., 1956.
- Niesel, Wilhelm.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03.
- Ott, Heinrich. *Die Antwort des Glaubens*. Stuttgart · Berlin : Kreuz Verlag, 1973².
- Peterson, Robert A. *Calvin's Doctrine of the Atonement*. New Jersey : Phillipsburg, 1983.
- Schick, Ludwig. *Das dreifache Amt Christi und der Kirche: Zur Entstehung und Entwicklung der Trilogien*. Frankfurt am Main : Verlag Peter Lang GmbH, 1982.
- Weber, O. *Grundlagen der Dogmatik*, tr. Darrell L. Guder, *Foundations of Dogmatics*. II. Grand Rapids :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2.
- Wendel, François. 김재성 역. 「칼빈 : 그의 생애와 신학사상」. 고양 :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9.